

### 문 오브 마이 오운 A Moon of My Own (Ted - För kärlekens skull)



2018 / 120분 / 드라마 (15 🕻 개막작)

감독 한네스 홀름

출연 아담 폴손, 피에테르 비타넨, 해피 얀켈, 요나스 칼손, 요한 헤덴베리,

토베 에드펠트, 마리아 쿨레

2018 / 120min / Drama 🕕 🔇

Director Hannes Holm

h Adam Pålsson, Peter Viitanen, Happy Jankell, Jonas Karlsson,

Johan Hedenberg; Tove Edfeldt; Maria Kulle

<와비라는 남자>의 감독 한네스 홀름이 들려주는 스웨덴 대중음악, 사랑, 성공에 관한 따뜻하고 울림 있는 이야기이자 뛰어난 재능의 뒤를 따라다니는 어둡고 위협적인 그림자에 관한 이야기이다. 70년대에 활동한 음악 천재 테드는 뛰어난 재능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하루아침에 인생이 뒤바뀐다. 음악계의 거물들이 그의 곁으로 몰려들고, 테드는 전국의 무대를 모두 정복하며 십대 소녀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하지만 성공의 파도가 밀어닥치자 형의 무조건적 사랑에도 테드는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리고 테드 주변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만 가는데...

유로팝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스웨덴 출신의 전설적인 싱어 송 라이터 테드 예르데스타드의 이야기를, 실제 테드의 친형이자 작사가였던 케네스 예르데스타드가 시나리오 작업에 참여해 생생한 디테일을 더했다. 2019년 스웨덴 굴드바게 시상식에서 프로덕션 디자인 상을 수상했다. From the director of A Man Called Ove comes a warm, heartfelt story about love, Swedish pop music and success - and how brilliance often brings something dark and threatening along with it. Ted is a musical genius and a wonder kid of the seventies whose life changes overnight when he gets discovered. All of a sudden, he finds himself surrounded by the musical elite, conquering every stage and the heart of every teenage girl. But in the whirlwind of success, despite the unconditional love from his brother, Ted finds himself alone and the shadows around him turn darker...

In order to reconstruct in all genuineness the life of the legendary Swedish singer-songwriter Ted Gärdestad who left an important mark on the history of Euro Pop, Ted's older brother and lyric writer Kenneth Gärdestad joined this film as one of the scenarists. The 2019 Guldbagge Awards in Sweden awarded this film with the Best Production Design Prize.



##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되기 Becoming Astrid (Unga Astrid)



2018 / 123분 / 드라마 🚯 🚯

감독 페르닐레 피셰르 크리스텐센

알바 아우구스트, 헨릭 라파엘센, 트리네 뒤르홀름, 마리아 본네비, 마그누스 크레페르, 비욘 구스타브손, 빌리 페트리 람네크

2018 / 123min / Drama 🚯 🚯

Director Pernille Fischer Christensen

Alba August, Henrik Rafaelsen, Trine Dyrholm, Maria Bonnevie, Magnus Krepper, Björn Gustavson, Willy Petri Ramnek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어린시절, 그녀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 사건이 일어난다. 기적이라고도, 재앙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그녀의 인생은 송두리째 뒤바뀐다. 덕분에 그녀는 동시대 사람들에게 수많은 영감을 준 여성이자 전 세계가 사랑하는 스토리텔러가 될 수 있었다.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되기>는 종교적인 가정환경과 주변 사람들의 기대, 당대의 사회적 규범에서 해방돼 자기 길을 걷기로 한 어린 아스트리드의 이야기이다.

<말괄량이 삐삐>의 원작자인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When Astrid Lindgren was very young something happened that affected her profoundly. It proved to be both a miracle and a calamity and came to shape her entire life. This was the event that transformed her into one of the most inspiring women of our age and into the storyteller a whole world would come to love. This is the story of when a young Astrid who despite the expectations of her time and religious upbringing, decided to break free from society's norms and follow her heart.

This movie depicts the life story of Astrid Lindgren, the author of <Pippi Longstocking>.



#### 아마추어 Amateurs (Amatörer)



2018 / 102분 / 코미디&드라마 🕐 🔇

감독 가브리엘라 피슐러

출연 사라 알도우야일리, 위아라 알리아도테르, 프레드릭 달, 샤다 이스마엘,

마리아 노라, 수산네 헤드만

2018 / 102min / Comedy & Drama 🕡 🔇

Director Gabriela Pichler

With Zahraa Aldoujaili, Yara Aliadotter, Fredrik Dahl, Shada Ismaeel,

Maria Nohra, Susanne Hedman

'라포르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포르쉬는 새출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는 스웨덴의 생기 없는 시골 마을이다. 독일의 체인형 할인점이 마을에 들어선다는 소문이 돌자, 주민들은 희망에들뜬다. 새 일자리 5백 개가 모든 걸 바꿔 놓을 테니말이다. 곧 라포르쉬 마을의 훌륭함을 보여줄 홍보 영상이 제작되지만 고등학교에 다니는 두 소녀아이다와 다나는 휴대폰 카메라로 홍보 영상과는조금 다른 이야기를 찍어 나간다. 그렇게 라포르쉬마을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싸움이 시작된다.

프레임에 담기는 것에만 신경 쓰는 프로페셔널 영화 제작진과 프레임 이면의 의미까지 담아내려 노력하는 두 아마추어 소녀 영화 감독을 대조시키며, "영화"라는 예술 매체의 본질을 은유적으로 질문하는 도전적이고 야심적인 영화. 2019년 스웨덴 굴드바게 시상식에서 감독상, 각본상, 남우 주연, 여우 주연상등 6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었다. Welcome to Lafors – a sleepy Swedish provincial town in desperate need of a fresh start. When a German discount store chain considers establishing itself in town, there is hope. Five hundred new jobs would change everything! A commercial is to be produced, to show the town's worthiness, but two bright high school girls, Aida and Dana, use their mobile cameras to tell a different story. The fight about the true story of Lafors has begun.

A defiant and ambitious question on the essence of the cinema as media is uttered in this film which contrasts the professional movie production process focus only on the elements shown in the frame, the process of two amateur female directors trying to reveal what lies beneath. This movie was nominated for 6 categories including the best director, the best script, the best actor, and the best actress at 2019 Guldbagge Awards in Sweden.



## 업인더스카이 Up in the Sky (Upp i det blå)



2016 / 82분 / 코미디 🕞 🕔

감독 페테르 렌스트란드

출연 미라 포르셀, 아담 룬드그렌, 구페 푼크, 페테르 렌스트란드,

셰블리 니아바라니, 이다 엥볼

2016 / 82min / Comedy (6) (8)

Director Petter Lennstrand

Mira Forsell, Adam Lundgren, Guffe Funck, Petter Lennstrand,

Shebly Niavarani, Ida Engvoll

여덟 살 소녀 포탄은 여름 캠프를 가던 중 이상한 캐릭터들이 모여 사는 재활용 센터에 가게 된다. 처음엔 망설이던 그들도 차츰 포탄을 돌봐주기 시작하고, 포탄은 곧 그들의 비밀을 알게 된다. 바로 높은 울타리 뒤편에서 우주로 가는 로켓을 만들고 있었던 것. 우주로 날아간 사상 최초의 여덟 살 소녀가 된 포탄과 함께 코미디와 모험, 우정을 만끽해 보자.

인형에, 로켓에, 쓰레기로 만든 보물이 등장하는 이 독특하고 매혹적인 영화는 보는 어른 관객 조차 동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흔치 않은 발견이 될 가족영화. 세계 최대의 어린이 영화제인 체코 즐린 영화제에서 ECFA상을, 스위스 취리히 영화제에서 어린이 심사위원상을 각각 수상했다.

Eight-year-old Pottan is going to summer camp, but by mistake she ends up at a recycling centre with some very peculiar characters.

Reluctantly, they take care of Pottan, who soon discovers their secret. Behind a tall fence, they are working on a home-made space rocket...

Comedy, adventure and unexpected friendships await, as Pottan becomes the first ever eight-year-old in space.

Featuring puppets, rockets and treasures made of trash, this unique and charming film is a rare kind of family movie for kids of all ages, making adult audiences become the child they once were. This film has been awarded the ECFA award at Zlin Film Festival in Czech, the biggest children's film festival in the world, as well as the Kids Jury Award at Zurich Film Festival in Switzerland





# 비욘드 드림스 Beyond Dreams (Dröm vidare)



2017 / 90분 / 드라마 🚯 🚯

감독 로이다 세케르세스

출연 에빈 아마드, 기셈 에르도안, 말린 페르손, 세겐 테스파이,

엘라 외흐만, 오티 멘페

2017 / 90min / Drama 🕕 🚯

Director Rojda Sekersöz

Evin Ahmad, Gizem Erdogan, Malin Persson, Segen Tesfai, Ella Åhman,

Outi Mäenpää.

강도 미수 혐의로 형을 살고 나온 미리야는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과 그들 사이의 규칙에 많은 변화가 생겼음을 깨닫는다. 게다가 중병에 걸린 엄마는 미리야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당장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그녀. 미리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 이중생활을 시작하는데…

난관에 맞서는 미리야의 모습을 통해 여성들 간의 유대관계가 가질 수 있는 깊이와 위력을 흥미롭게 그려내는 영화. 북유럽 최대 영화제인 예테보리 영화제에서 노르딕 영화 최고 관객상을, 2019년 스웨덴 굴드바게 시상식에서 최고 신인상을 각각 수상했다. While serving her prison sentence for a failed robbery Mirja has been away from the gang and their rules. She returns home and confronts new circumstances: she brutally finds out that her mother is very ill and demanding. Mirja has to find a job or she'll be thrown out. In her ambition to handle the situation Mirja begins to lead a double life between the family and the gang.

Through the experiences of Mirija, this movie examines the depth and power of female relationships. The film won the Best Nordic Film Audience Choice at Göteborg Film Festival which is the largest film festival in Scandinavia as well as the Best New Artist Award at 2019 Guldbagge Awards of Sweden.





### 골리앗 Goliath (Goliat)



2018 / 88분 / 드라마 🚯 🔇

감독 피에테르 그뢴룬드

출연 세바스티안 융블라드, 요아킴 셸퀴스트, 코넬리아 안데르손,

홀게르 요한손, 엘리나 에릭손, 엘리자베스 아우간데르

2018 / 88min / Drama 🚯 🚯

Director Peter Grönlund

Vith Sebastian Ljungblad, Joakim Sällquist, Cornelia Andersson,

Holger Johansson, Elina Eriksson, Elisabeth Augander

킴미는 스웨덴 어디에나 있을 법한 작은 마을에 사는 소년이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감옥에 들어가고, 킴미는 가족을 돌보며 아버지 대신 범죄에도 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2019년 스웨덴 굴드바게 시상식에서 각본상, 남우 주연상, 음악상을 수상했다. 주인공 킴미 역의 세바스티안 융블라드는, 직업 배우가 아닌 일반인 배우로 리얼리티를 추구하려 했던 제작진이 스웨덴 전국 각지의 고등학교, 그 주변의 맥도날드까지 뒤져 찾아낸 보석. Kimmie is a boy living in a small mill town in anywhere, Sweden. He is expected to support his family, as well as taking up his father's criminal activity once his old man ends up in prison.

At 2019 Guldbagge Awards in Sweden, this movie received the Best Script Award, the Best Actor Award, and the Best Music Award. Sebastian Ljungblad, the main character Kimme, is a nonprofessional actor. He has been described as a "hidden gem". The production team found him after a long casting journey at high schools, and even some McDonalds, all over Sweden.



#### 몽키 Monky (Monky)



2017 / 90분 / 코미디 🕒 🕔

감독 마리아 블롬

출연 율리우스 이메네스 후고손, 마틸다 포르스 린드스트룀, 프리다 할그렌,

니나 오켈룬드, 요한 피에테르손

2017 / 90min / Comedy 😉 🚯

Director Maria Blom

Vith Julius Jimenez Hugoson, Matilda Forss Lindström, Frida Hallgren,

Nina Åkerlund, Johan Petersson

<몽키>는 11살 소년 프랑크와, 비극이 닥친후의 어느 날 저녁 프랑크의 집에 갑자기 나타난 정체불명 긴팔원숭이의 비밀스러운 우정에 관한이야기이다. 이 원숭이가 평범한 동물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지자 프랑크와 가족은 해답을 찾아작은 스웨덴 마을을 떠나 태국 가장 깊숙한 곳의정글로 스릴 넘치는 모험을 떠난다.

<심플 사이먼>의 작가 요나탄 회베리가 각본에 참여했다. 영화에 출연한 긴팔원숭이는 컴퓨터로 제작되었다. 그 제작비용을 따져보면, 이 긴팔원숭이는 스웨덴 영화 역사상 최고의 출연료를 기록한 셈이다. Monky tells the story of Frank, 11, and his secret friendship with a mysterious gibbon ape that unexpectedly shows up in his home one night after tragedy strikes. It's soon clear that this is no ordinary animal and in the search for answers Frank and his family embarks on a thrilling adventure that will take them from a small Swedish village to the deepest jungles of Thailand.

Jonathan Sjöberg, the writer of <Simple Simon>, participated in the script-writing of this film. The monky is computer animated and it is said that the cost of the animation made him the highest-paid "actor" in the history of Swedish movies.



### 가든 레인 Garden Lane (Trädgårdsgatan)



2018 / 114분 / 드라마&로맨스 🚯 🔇

감독 올로프 스파크

출연 카린 프란츠 셸뢰프, 시몬 J. 베리에르, 에밀 알리페우스, 나이키 링크비스트,

에바 프리쇼프손, 린다 몰린

2018 / 114min / Drama & Romance 🚯 🔇

Director Olof Spaak

With Karin Franz Körlöf, Simon J. Berger; Emil Algpeus, Nike Ringqv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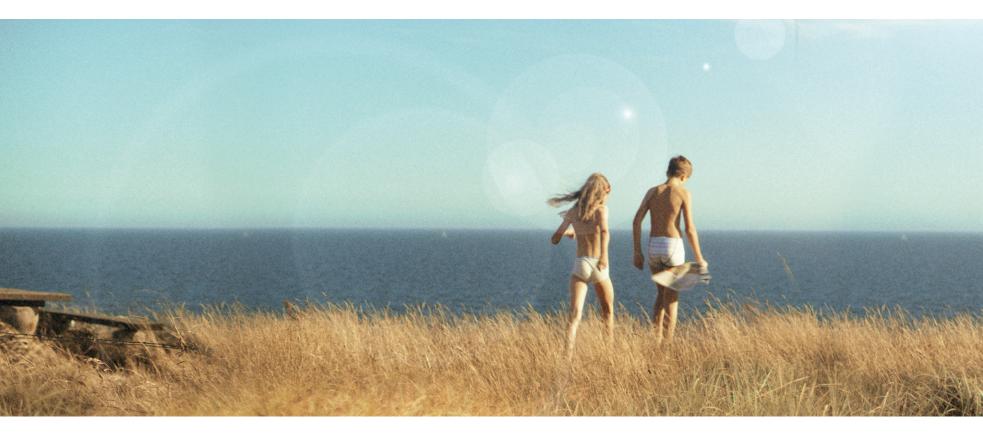
Eva Fritjofson, Linda Molin

오랜만에 만난 에릭과 엘린은 둘이 처음 만났던 어둡고 마법 같은 여름을 회상한다. 둘은 아직 어린아이였고, 둘의 부모 린다와 피에테르는 마약 중독자였다. 네 사람은 아름답고 강렬했던 몇 개월을 진짜 가족처럼 보낸다. 하지만 린다와 피에테르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서 두 아이는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는데...

시적인 표현이 돋보이는 남매의 아름다운 성장영화. 촬영 감독 크리스토퍼 옌손에 의해 담겨진, 에릭과 엘린이 유년 시절 특별하고 비극적인 여름을 보낸 황무지의 풍경이, 황량하면서도 강렬한 아름다움을 뿜어낸다. 2019년 스웨덴 굴드바게 시상식 촬영상 수상. Eric and Elin reminisce about the dark, magical summer when they first met. They were just kids and their parents, Linda and Peter, were drug addicts.

During a few violent but beautiful...

This beautifully poetic movie tells a story about a sister and a brother who grew up in pain. The director of photography Kristoffer Jönsson's captures the desolate and compelling beauty of the landscape of wasteland where Eric and Elin spent a special and tragic summer in their childhood. This artistic achievement was even awarded with the Best Cinematography Prize in 2019 Guldbagge Awards in Sweden.





#### 한국전과 스웨덴 사람들 The Swedes in the Korean War



2019 / 60분 / 다큐멘터리 🕝 🕻 감독 미카엘 헤드룬드

2019 / 60min / Documentary (1) (3)
Director Mikael Hedlund

1950년 9월 23일 유엔사령부의 부산 지역 탈환 직후, 150명의 스웨덴 의료진 및 의료 지원단이 대한민국 부산항에 도착했다. 부산시 북부에 배치된 이들은 도착 이틀 후부터 68명의 환자를 치료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한국을 제외한 최초의 의료 지원단이었다. On September 23, 1950, short after the UNC breakout from the Busan perimeter, 150 Swedish medical and other field hospital personal arrived in Busan harbor, South Korea. They were deployed just north of the city and received their first 68 patients two days later. By that, the first non-American/Korean medical unit, during the Korean war, was established.

<한국전과 스웨덴 사람들>은 한국전쟁으로 부상당한 군인과 민간인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머나먼 한국 땅을 찾은 스웨덴 사람들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스웨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도적 지원으로 1950년 부산 스웨덴 적십자 야전병원 건립을 위해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한국에 도착했다. 69년이 지나 현재는 노령이 된 이들의 이야기는 스웨덴과 한국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우정을 나누며 끈끈한 유대를 지속하게 되었는지 보여준다. 양국이 현대 민주국가로 거듭나 국제 관계를 이루어 온 데 대한 이해를 돕는 아주 중요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이다.

전쟁의 결과에 대해 결론지어 이야기 할 수 없지만, 스웨덴의 기여는 한국전쟁 전후 관계된 모든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귀감이 되었다.

<한국전과 스웨덴 사람들>은 AMF 재단 소유의 AKA영화사에서 제작했다.

The Swedes in the Korean war is a historical documentary about the men and women who traveled to the far away Korea and their meetings with wounded soldiers and local patients.

With the largest humanitarian undertaking ever made by Sweden, in 1950 volunteers rushed to help setting up the Swedish Red Cross Field Hospital in Busan. This was 69 years ago. Today the aging Swedish samaritans can testify how the Korean war became the start of new relations, new friendships, and lasting, strong bonds between Sweden and Korea.

These are stories never told before and are an important and touching part of our understanding of the building of democratic nations and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The documentary has been produced by AKA-Film Company, owned by the AMF Foundation.

















31

#### 영화제 문의 CONTACTS

서울 아트하우스 모모 02-363-5333 SEOUL Arthouse Momo www.arthousemomo.com

부산 영화의전당 051-780-6000 BUSAN Busan Cinema Center www.dureraum.org

광주 광주극장 062-224-5858 GWANGJU Cinema Gwangju http://cafe.naver.com/cinemagwangju

인천 영화공간주안 032-427-6777 INCHEON Cinespace Juan www.cinespacejuan.com

대구 동성아트홀 053-425-2845 DAEGU Dongsung Art Hall www.artmovie.co.kr

주한스웨덴대사관 02-3703-3700 Embassy of Sweden in Seoul Infosweden.seoul@gov.se